즉문즉설 ②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방송이나 불교관련 언론 매체에서 보면 어느 사찰이랄 것 없이 서로 신통, 영험함을 선전하며 자기네 사찰은 천년고찰로서 ○○누가 창건했고 그래서 기도하면 한 가지 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많이도 봤을 겁니다. 현재도 계속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불교가 이런 것 입니까? 이것은 영락없는 장사꾼들이 하는 호객행위와 다를 바 없다. 원(願)이라 했는데...

불자들이 법회나 기도 때 천수경을 약방 감초처럼 꼭 하는데 말미에 **발사홍서원을 승, 속이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별도의 원(願)이 있는가?**

그것도 부처님 면전에서 큰 소리로 하면서 거기 다 십악 참회와 더불어 절대 삼독을 버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래도 부처님께서 믿지 아니할까 봐서 굳은 맹세를 서원으로 보답하고저 지난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참회를 바탕으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經典)을 다 배우고 궁극에는 불도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맹세, 맹세 스스로 서원을 통해 약속해 놓고는** 그것도 잠시 바로 이어서 서서히 야수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입시 현수막을 붙여놓고 합격시켜 달라, 인등 켜 놓고 승진시켜 달라, 돈 벌게 해 달라, 재수대통하게 해 달라 등등... 잡동사니를 요구하는게 왜 그리 많은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버얼건 대 낮에 승, 속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부처님께 겁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고 작은 승들이 아무도 입을 대는 이 없다. 그러니 큰 절에 있었던 외국 스님이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고 하며 떠났지...

무엇이 정법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면서 그런데도 불자들한테 물으면 자기네들이 스님과 더불어 정법 수행을 한다나?...

정말 바르게 해도 기적은 체험하기란 어렵고 어려운데 허구한 날 하는 짓이란 그저 푸닥거리 수준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불교는 아주 쉽고 간단하다. 초등학교 때 도덕, 바른 생활이다.

불교신문과 지역신문에 "종교는 도덕이지 더 이상 더 이하의 것도 아니며, 그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종교는 도덕이 근본이다.** 딱 맞는 말이다.

예로 아들 셋을 둔 가장이 있다고 했을 때 첫째는 맨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사주, 삼재, 부적, 방생, 성지순례등 비불교적인 행위)들만 하면서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둘째는 아버지의 교지를 잘 받들어 삼재, 사주, 부적, 방생, 성지순례 등등...을 하지 않고, 셋째는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는 불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설법이란 성인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2 - ○○ 스님]

오래전에 시한부로서 소승한테 기도 받았던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안부와 함께 하는 얘기는 잘 아는 스님이 아무리 봐도 조현병 같은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번 봐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몸은 어땠었냐고 물으면서 ○월 ○일에 데리고 오라고 약속을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았다.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은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스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할 수 없이 그 스님이 임시 보호자가 되어 다시 약속한 날에 데리고 왔다.

눈을 보니 본성을 잃고 환란에 젖은 지가 오래 되었고, 그로 인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해 극도로 야위었다. 그래서 신도님께 죽 집에 스님 4분과 함께 5인분을 예약해 달라고 했다.

(여기에서 어떤 이는 공영방송에서 조현병 환우를 병원에 보내라 했고, ○○ 명상대전에서는 참회가 어떻고, 정념이 어떻고 하며...결론은 참회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라 했는데...아니 이미 정신세계가 환란에 젖어 본성을 잃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에게 참회라니...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 할 소리인가?

이럴 때 수행 끝에 얻은 초능력이 있다면 바로 데려오라 해서 그 능력을 쓰면 될 것이다. 공중부양을 비롯해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그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찰나에 통과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능력이 과연 있다면 지금 환우를 내 앞에 오게 한 다음 그를 환란에 젖게 한 불순물을 순식간에 투시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일초지기에 제거하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말로 하지 말고 보여라! 제발 입은 굳게 다무는 연습을 하자.

출가수행자가 얻는 불가의 신통은 중생제도에 꼭 필요한 그 권능을 불보살님과 바른 수행자 누구에게나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곳에 쓰지 않으면 그 권능은 순식간에 없어짐을 알아야 한다. 한갓 신비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권능이 아니고 눈속임 하는 마술에 불과한 것이다.)

나이는 속세 40대 초반이고, 대형사찰에 있으면서 선방 수좌로 10년 가까이 생활하다 다시 대학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대화는 본인과는 불가능했고, 부탁한 스님이 겨우 당사자의 입을 보고 통역하다시피 해서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손은 목을 쥐고 있으면서 입은 물고기를 밖에 내어놓으면 숨을 쉬기 위해 입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것도 2초 간격으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다.

식당에 가서 누가 볼세라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음식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다. 짐짓 신도분이 놀라는 기색이다. 그러나 그 신도 분은 그와 유사한 스님들 사례를 많이 보아 왔기에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옴을 알 수 있었다.

신도 분 보고 공양게송을 하라 하고는 전부 고개를 들고 숟가락을 들게 했다. 유독 한 스님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 낌새가 없는 것이다.

이때 "고개를 들고 날 쳐다보라."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드나? 당당하게 들어라. 그리고 날 쳐다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저 스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오늘 누구도 이 공양을 들지 못한다."고 했다.

계속 고개만 숙이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옆에 스님이 사실은 밥이 아닌 미음이나 우유죽도 먹어본지가 오래되고, 근자에는 주로 주사(링거)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당당하면 피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고 했다. 그때 고개를 조금씩 드는 것을 보고 "고개 들었으면 숟가락을 들어라."고 하니 숟가락을 들고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었다.

"숟가락을 들었으면 죽을 뜨라"고 하니 자꾸만 망설였다. 큰 소리로 "왜 죽음이 두렵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설사 죽으면 이 스님이 너 하나 정도는 건져 줄 법력은 있다. 내가 책임지고 49재는 여법하게 지내줄 테니까 죽을 떠서 입에 넣으라."고 다시 큰 소리를 치니 죽을 입에 갖다 넣는 것을 보고 "넣었으면 씹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먹는데 일행 중에 제일 먼저 그릇을 비우자, 옆의 신도님이 죽을 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한 그릇 하고도 반을 더 먹은 셈이다.

어느새 물고기처럼 껌뻑껌뻑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 길에 또 신도분이 미리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죽을 더 사주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새벽안거 중인지라 신도님들 20여분이 보는데서 기도해 주었고, 아침에 죽은 내가 먹고 그 스님은 잡곡밥을 주었다.

이참에 재현될까봐 "이 시간 이후 절대 사주, 부적, 삼재, 입시기도, 승진기도, 인등 등등...을 하는 삿된 절에는 절대 가지 말라.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당분간 여기 있으라."고 했으나 일단 갔다가 짐을 싸서 다시 오기로 하고는 그날 오후에 역시 잡곡밥을 먹고는 갔다.

제 정신이 돌아오고서야 속인들이 봤으니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제대로 수행 안 하고 삿된 곳을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기 위함인 것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 그리고 그 큰 대형사찰에서 이미 알려진 스타급 스님들과 TV 등...방송매체에 출연하는 큰 스님들을 많이도 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스님 하나 병마로부터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어디 그 사찰뿐이겠는가?

서산대사의 말씀이 뼈저리게 생각난다.

學語之輩
말을배우는그무리들은

說時似悟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對境還迷
경계에 맞닥뜨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所謂言行
이른바 말과 행동이

相違者也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禪家龜鑑」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 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납은 각종 환우 기도시 신도님들과 더불어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한다. 특별한 환우(조현병 환자)는 상태에 따라 관전만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같이 한다. 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삿된 곳에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

정법을 지켜내기 위해 보일 수 밖에 없다. 여기 신도님들은 가지 가지 많이도 봤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 내용 :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일시 :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연등사 대웅전
- 전화 : 055-633-6555 (학장스님 010-9411-5302)
- 참가자격 :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당분간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① 010-2526-4365 (김 00)
② 010-4807-6932 (박 00)
③ 010-9707-4808 (박 00)
④ 010-6786-7495 (윤 00)
⑤ 010-3143-5302 (선현)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